



세밑 한파와 함께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눈이 내린 30일 오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사람도 차량도 엉금엉금 이동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폭설에 도심 ‘꽁꽁’...출근길 정체 ‘극심’

광주·전남 일부 지역 대설특보...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제설작업 불구 곳곳서 혼란...연초 눈·강추위 이어질듯

“눈이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30분 일찍 나왔는데, 평소 20분 거리를 2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어요.”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30일 오전 출근길 곳곳이 정체를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전날 밤 제설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도로가 결빙되는 탓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 우사거리.

용봉택지로 (북구 용봉동 1430번지)에서 설죽로 (북구 용봉동 1429번지) 방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신호를 무시하며 꼬리물기 하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었다.

주변 인도에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

서 시민들의 불안한 발걸음이 이어졌고, 도로 역시 차선 구분이 어려워 끼어드는 차량들이 속출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속도를 내며 신호를 무시했다.

갓길에 정차된 트럭 한 대가 출발하자 바퀴가 헛돌며 순간 옆을 지나가는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다. 비슷한 시각, 전남대입구 사거리 부근 역시 차량들이 2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하는 등 차량 사이사이 간격을 크게 벌리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한 승용차가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웠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20km 이상 속도로 달려왔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밀리면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동구 충장로 삼거리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두꺼운 겉옷과 부츠 등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고, 우산을 쓰거나 후드자켓으로 머리를 감싸기도 했다.

횡단보도는 차량들이 지나간 탓에 질퍽하거나, 미끄러웠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넘어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광주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눈을 지워달라는 시민들의 민원도 속출했다.

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정모(30)씨는 “폭설이 내려 도로 곳곳이 얼어붙거나, 미끄러워 위험한데 과속하는 차량들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차량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신호를 잘 지켜야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 무진로, 빗고로, 제2순환도로 등 148개 노선에서 제설작업을 했지만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이후 많은 눈이 내렸고, 오히려 큰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오후 3시 기준 광주지역에는 16.3cm의 눈이 쌓였다. 최대 적설량은 화순 13.6cm, 장성 14.4cm, 담양 8.6cm, 나주 7.5cm, 곡성 5.0cm, 신안 흑산도 6.8cm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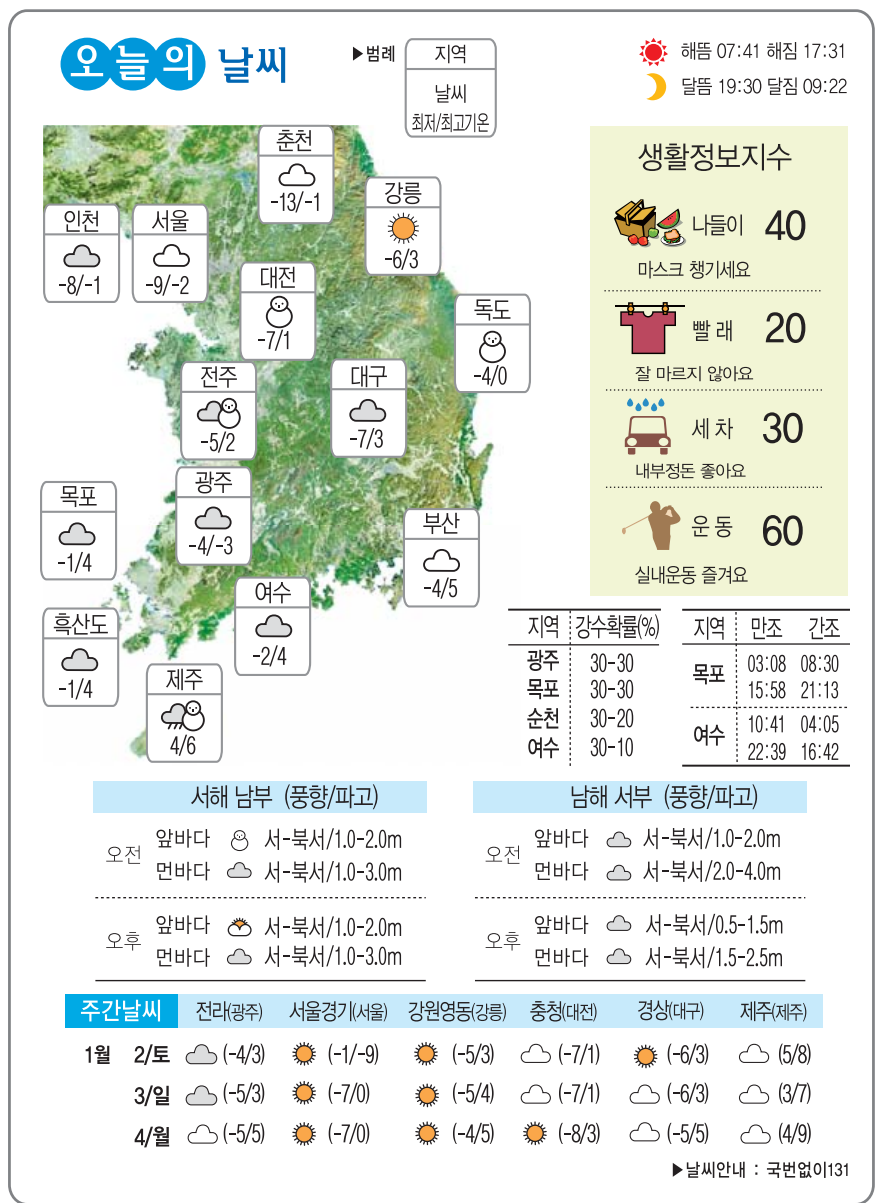
광주를 비롯 영광, 목포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눈이 많이 내리는 한 때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영하권 추위가 당분간 이어지고, 31일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은 새해 첫날인 1월1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광주·전남에 5~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눈은 1일 새벽부터 점차 찾아올것다.

/김동수·최명진기자



남구, ‘아이 놀이문화 혁신’ 복지부장관상

전국 10곳 선정...광주·전남 유일

광주 남구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선보인 ‘지역사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놀이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을 전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놀이혁신 선도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 성과가 뛰어난 전국 1

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남구가 유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3곳의 기관과 손잡고 만 6세부터 12세 사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해왔기 때문이다.

남구는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수행 지역에 선정된 후 공하나 협동조합을 비롯해 ㈜다나무, 한국예술문화연합회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문화 확산 사업을 펼쳐왔다. /김동수기자

전남 중·고생 98% “5·18 알고 있다”

도교육청, 인식도조사 결과...학교수업 필요성에 공감

전남지역 중·고등학생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수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30일 도내 학생(초4~고3)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5·18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18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

식도를 분석하고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남 중·고생들은 5·18을 대부분(97.9%) 인지하고 있었으며 수업 필요성을 공감(초 70.1%, 중·고 80.1%)하고 있었다. 인지 경로의 경우 교사는 TV/책자·잡지·신문(각 50.8%), 학생들은 교과수업(초 72.1%, 중·고 7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18 관련 행사는 영화 관람(초 50.8%, 중·고 56.4%), 사적지 답사(초 18.5%, 중·고 19.6%), 글쓰기·그리기 대회(초 15.7%), 오월 연극 관람(중·고 10.4%) 순으로 선호했다.

5·18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교사)은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4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도교육청이 발간·제공한 교육자료도 큰 도움(87.2%)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18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는 5·18수업 강사 지원(37.3%), 수업 자료 및 동영상(31.5%), 학교단위 사적지 현장체험 지원(23.8%), 5·18마로알기 교원 연수(6.7%) 등으로 나타났다.

5·18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4·19혁명(80.3%), 6월 민주화항쟁(69.8%), 제주 4·3사건(61.4%), 여수·순천 10·19사건(37.3%), 11·3학생독립운동(30.6%), 부마항쟁(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원범기자

광산구,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 감면 추진

광주 광산구가 취약계층 4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사업의 하나로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4대 생활요금 중 이동통신의 경우, 현

행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매월 최대 1만1천원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320만명에 달한다.

광산구 역시 현재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5만3천937명이고, 이중 33%인 1만7천86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로 했다. /고훈식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아오는 2021 새해 코로나19 이겨내고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1 신축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회장 양 동 호
대표전화. 062. 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 (신안동)